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3일 08시 30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전체 3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 사후활용 계획 '추진' 3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 사후활용 계획 '추진'

2022.01.06 조회수 490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김도희 연락처 061-659-4750

(주)빅스톤픽쳐스 올해 '칠년전쟁' 드라마 촬영 돌입 예정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이 추진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영화세트장 사후활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돌산 진모지구는 국내 영화 역사상 최다 관중을 기록한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과 '노량'이 촬영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빅스톤픽쳐스에 따르면 '한산'은 재작년 10월, '노량'은 작년 6월에 촬영을 끝내고 개봉 준비를 마쳤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개봉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안에 두 거작이 개봉 예정에 있어 '명량'에 버금가는 관중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돌산 진모지구에서는 드라마 '칠년전쟁'을 촬영한다. 금년 상반기 연기자 케스팅 및 시나리오 작업을 거쳐 드라마에 필요한 세트장을 보수한 후 하반기 무렵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 촬영 종료를 앞두고 영화세트장에 대해 사후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면서 "현재 영화세트장이 대부분 목조건물로 유지보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고, 타 시군 영화세트장 운영실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추진 등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활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4월, 권오봉 여수시장과 ㈜빅스톤픽쳐스 김한민 감독이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 3년간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통해 영화세트장을 조성하고 영화 2편과 드라마 1편을 촬영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활용 가능 구조물에 대해서는 여수시의 판단에 따라 기부채납 등 절차에 따르기로 하고 사후 영화세트장으로 활용할 경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2.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 사후활용 계획 '추진'.jpg (274 hit/ 795.2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여순사건 영화 '동백'…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되…

다음글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 미래 100년 시민과 함께…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여수시